

애플, 액정용 반도체 인수 추진

RSP, 500억엔에 인수 협상 ... 핵심기술 보유해 경쟁력 강화

애플(Apple)은 일본의 반도체 메이저 Renesas Electronics(RE)의 액정용 반도체 분야 자회사를 인수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애플은 RE와 RE의 자회사 Renesas SP Driver(RSP)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RSP가 개발·판매하는 액정용 반도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의 화질과 반응속도를 좌우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RSP는 글로벌 중소형 액정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고화질에 전력소비량이 작은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 액정용 반도체기업의 직접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운영체제(OS)에서 패권을 장악한 퀄컴(Qualcomm)과 구글(Google) 연합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플은 RE가 보유한 RSP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 금액은 500억엔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02>